

“정상 등정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희망”

■道公 ‘에베레스트·로체 원정대’ 22일 발대

광주·전남 출신 산악인들이 주축이 된 한국 유일의 실업산악팀인 한국도로공사 산악팀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Everest·8,848m)와 제 4위봉인 로체(Lhotse·8,516m) 동시 등정에 도전한다.

이번 원정에는 특히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우 산악인 김홍빈

장애 산악인 김홍빈씨 세계 최고봉에 올릴 터

(43·송원대산악회OB)씨가 부대장으로 참여,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의 최난 관문 룰파를 시도한다.

‘희망을 위한 2007 한국도로공사 에베레스트·로체원정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28일 네팔 카트만두로 출국한다.

원정대는 박상수(48·무안영업소장) 원정대장과 김 부대장, 김

주형(40) 에베레스트 등반대장, 강연룡(35) 로체 등반대장, 김미곤(35)·윤중현(37)·박남수(43)·이상 광주시산악연맹·김창호(38·서울시연맹)·이석희(21·충북도연맹) 대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장 등 6명이 광주·전남 출신이다.

원정대 명칭 앞에 ‘희망’을 붙인 것은 이번 원정의 목표가 거봉 등정 뿐만 아니라 장애 산악인인 김씨를 세계 최고봉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박 대장은 “하나의 모자람을 들로써 체워 이웃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희망의 표본을 보여주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원들은 다음달 9일 에베레스트 날동릉 해발 5,400m 지점에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6,050m~8,000m 지점에 4개의 캠프를 설치한 뒤 5월 초·중순 세 차례에 걸쳐 정상공격을 시도한다. 에베레스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로체 등정은 해발 7,600m 지점에서 갈라져 강 대장과 김미곤·윤중현 대원이 도전한다.

한국도로공사 산악팀은 지난 2001년 창단 이래 1997년 힐말라야 낭가르바트(8,125m) 등정, 2002년 한국 최초의 시샤팡마(8,027m) 신루트 ‘코리안 하이웨이’ 개척, 2005년 낭가르바트 루풀벽 등

정 등 국내 등로주의 등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명예단장인 손학래 사장은 “장애인 산악인과 함께 하는 이번 등반은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와 촘촘한 팀워크가 요구된다”며 안전한 등반을 기원했다.

김홍빈씨는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6,194m) 단독 등반 도중 등상에 걸려 양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한 뒤 재기에 나서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5,642m)와 아프리카 킬리만자로(5,895m), 남미 아르카구아(6,962m)를 오르는 등 세계 7대륙 최고봉

광주·전남 출신 6명…이웃사랑·나눔정신 실천

등정에 도전 중이다.

지난해 파키스탄 가셔브룸 II(8,035m)봉과 시샤팡마 남벽에 올라 한 해동안 8,000m급 거봉 2개를 오르는 저력을 발휘한 김씨는 “에베레스트 등정 후 호주 코시어스코(2,230m)와 남극 블린제프(4,897m)에 연속 도전, 남은 최고봉 등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후기자 who@kwangju.co.kr



‘희망을 위한 2007 한국도로공사 에베레스트·로체원정대’ 대원들이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훈련 도중 한 자리에 모였다. 앞 줄 가운데가 박상수 원정대장, 맨 뒷줄 오른쪽 끝이 김홍빈 부대장.

‘입양 흉보대사’ 윤석화, 두 번째 아이 입양



연극배우 윤석화(51)씨가 두 번째 아이를 입양한다.

서울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윤씨가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 아이를 내일 입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윤씨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2003년 아들 수민(5)군을 입양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동방사회복지회는 윤씨가 수민군을 입양한 뒤 수민군의 누나가 될 아이를 찾아왔지만 여의치 않아 이번에 여동생을 입양하게 됐다고 전했다.

윤씨는 1996년 미혼모자 보호시설인 서울 사회복지법인 애란원과 결연한 것을 인연으로 국내입양 흉보대사로 활동하면서 2005년 입양 활성화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쉬는 날 지하철서 이·미용 봉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송선덕 과장



“자원봉사에는 종목이 없습니다. 참여가 가장 중요해요”

광주도시철도공사 종합관제팀 송선덕(47)과장의 ‘봉사 철학’이다. 송과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술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말벗 부터 시작해 보라”고 권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송과자는 지난 1월부터 금남로4가역내 ‘동글이 방글이’ 무료 이·미용실에서 주간근무일이 아닌 첫째, 셋째주 월요일에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신의 일터에서 일과 봉사를 함께 하고 있는 셈이다.

송과장은 1992년 철도청 근무 당시 불규칙한 승무 스케줄로 생기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다가 복지관을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봉사를 시작했다. 말벗되기, 청소 등 간단한 일부터 시작한 송과장은 노인들의 덥수룩한 머리를 손질해 주고 싶은 욕심에 친척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이를 기술을 익혔다.

목포 상동 사회복지관, 은금동 사무소 등에서 영세민을 위한 이·미용 활동을 벌인 송과장이 무료로 머리를 손질해 준 사람만 1천여명.

이 같은 선행이 입소문을 탄 덕에 송과장은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표창을 받기도 했다.

/체험기자 chae@kwangju.co.kr

청소년 범죄 예방 나선 경찰서장

이 윤 광주 남부경찰서장, 관내 학교 방문 강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청소년 범죄 예방 교실’의 강사로 나선 이윤(54) 광주남부경찰서장이 19일 오전 문성중학교 대강당에 모인 150명의 학생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자자 곳곳에서 답변들이 터져나왔다.

학생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질문을 하며 분위기를 풀어가던 이서장이 제시한 답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배우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주변 친구들에 대한 소중함과 학교 폭력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이다.

‘청소년 범죄 예방 교실’은 이서장이 직접 관내 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에 대한 강연을 하는 것으로 지난주 금요일 금당중학교를 시작으로 이번이 두 번째 수업. 현장에서 보고 느낀 청소년 사건 사례 중심의 강의로 큰 호응을 얻은 이서장은 송원, 무진중학교에서도 강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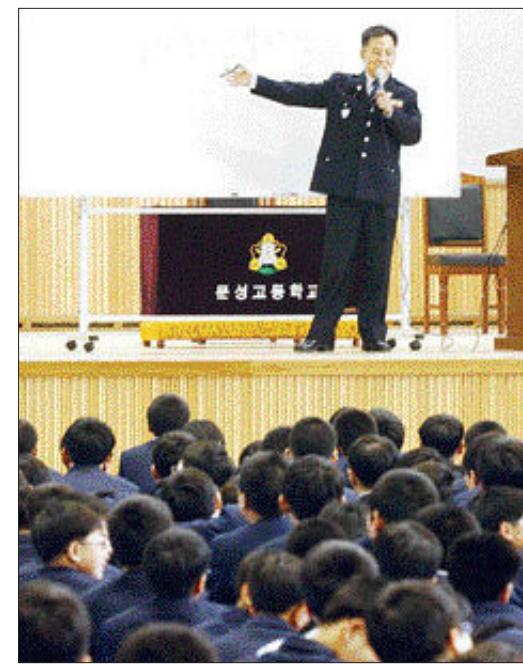
정윤재(문성중 3)군은 “강의를 통해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고, 학교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훈계만 하실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간부후보 33기인 이서장은 광주 제일고, 경희대 법대 및 동대학원 행정학과를 거쳐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따 학구파로 중앙경찰학교 교수를 하며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의를 펼쳤다.

강의 후 이서장은 “입시와 진로 문제로 바쁜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이하의 학교 폭력이 심각해져 중학교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하지말라는 얘기보다는 직접 느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폭력을 미화하는 영화, 격투기 시합들 흥행 위주의 오락 문화에 대한 어른들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학교폭력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학교 폭력 전담경찰관제’를 신설, 전국에 15명의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학교



이윤 광주남부경찰서장이 문성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다.

/N.민주기자 mjna@

관련 업무만 전념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 지역에는 동부, 남부서 2곳에서 시범 운영중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영화배우 이미숙씨 결혼 20년만에 파경

영화배우 이미숙(47)이 결혼 20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이미숙 측은 19일 “1987년 성형외과 전문의 홍성호 박사와 결혼했던 이미숙은 최근 흥씨와 부부관계를 정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6년 전 두 자녀를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유학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별거생활을 하게 됐고 각자 일에 몰두하면서 애매한 감정이 식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2012여수세계박람회 BIE실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여수시가 지난 19일부터 시 청사 로비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전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허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

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

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접수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

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

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

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호남해비리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

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

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

for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

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

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

=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

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

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

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전주리씨 대동종교원 광주·전

남도지부 여성이회회(회장 리보희)

월례회=22일(화) 오전 11시30분

광주·전남 도지원 회의실. 225-

5631

▲창원황씨 광주·전남 종친회(회

장 황양선) 정기총회=24일(토) 오

전 11시 탑골하우스 연회장. 018-

211-3344

▲진주강씨 광주전남종회(회장

강대욱) 정기총회=25